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이리 카운티 등 술집 7곳의 주류 면허 정지 발표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화요일 밤에 835건의 준수 확인을 실시하여 41건의 위반 추가 적발

코로나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64개 사업자의 주류 면허가 일시 정지

팬데믹 기간 중 549건의 기소가 현재까지 신고 및 처리되었으며, 갱신된 중지 및 기소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팬데믹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심각하게 위반한 7개 바의 주류 면허를 정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바는 뉴욕시 다섯 곳,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한 곳, 이리 카운티의 한 곳입니다. 수요일 주 경찰(State Police) 및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이 이끄는 주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835건의 준수 확인을 실시했으며, 41개 시설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태스크포스는 규정 위반 사항 1,966건을 확인하고 96건의 위반을 적발하여, 규정 위반률은 5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의 경우 바 또는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가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가운데 감염률이 상승하고 술집이 붐비는 것은 뉴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전국의 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조차 청년들에게 술집 방문을 삼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며 이룬 진전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어젯밤, 우리의 태스크포스는 다운스테이트에 위치한 41개 이상의 시설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칙을 어긴 주 전역의 7개 술집의 면허를 정지합니다. 주 경찰과 뉴욕주 주류관리청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도 나서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 및 레스토랑에서 뉴욕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 보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상승 곡선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수십 개의 주에게 확진 사례의 급증을 목격하면서, 우리 모두는 바이러스에 거 멀어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주 조사관들은 41개 시설에서 위반을 발견했고 공식적인 기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관찰된 위반의 지리적 발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롱크스 — 5곳
- 브루클린 -- 2곳
- 맨해튼 -- 20곳
- 퀸즈 -- 11곳
- 나소 - 3곳

7월 30일 회의를 진행한 후, 뉴욕주 주류관리청 위원회(State Liquor Authority Board)는 7곳의 시설에 대하여 일시 정지 비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시닝 크로톤 애비뉴 84의 "애틀란타 바(Atlantic Bar)"

SLA는 해당 장소에서 7월 24일 벌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오시닝 빌리지 경찰서(Village of Ossining Police Department)의 신고를 접수 받았습니다. 해당 일자에 경찰관들이 가게 바깥에 몇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정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소유주에게 문을 열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술을 마시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어울리고 있었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켄모어 켄모어 애비뉴 1809의 "더 빌리지 라인(The Village Line)"

7월 24일 가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SLA 조사관이 술집을 방문하여 세 명의 고객이 바에 앉아 음식 없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직원에게 메뉴를 요청한 후, 조사관은 옆의 가게에서 피자를 사서 돌아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장 시 취식은 금지입니다. 해당 술집은 음식없이 술을 판매해야 하며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비신의" 행위로 인해 행정명령 202.5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명령은 1964년부터 모든 면허를 가진 술집에 적용되었습니다.

맨해튼 암스테르담 애비뉴 477의 "하이 라이프 바 앤 그릴(Hi Life Bar & Grill)"

7월 29일 주정부 다지구 태스크포스의 조사관들은 영구 구조물에 고객이 착석하여 식음료를 제공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야외 서비스 임시 지침 위반을 구성합니다.

브루클린 스미스 스트리트 128의 "바 타박(Bar Tabac)"

7월 24일 주정부 다지구 태스크포스의 조사관들은 가게 매니저, 바텐더, 호스트, 4명의 주방 직원 등 직원 일곱 명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습니다. 면허

소유자는 6월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토리아 아스토리아 블라바드 33-29의 "리퍼블릭(Republic)"

7월 24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의 조사관들은 영업장이 오전 12시 30분에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오후 11시 이후 야외 서비스 금지라는 뉴욕시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고객이 술을 마시며 보도에서 물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영업장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잭슨 하이츠 85-09 노던 블라바드의 "카부 바 라운지(Kabu Bar Lounge)"

7월 24일 주정부 다기관 태스크포스의 조사관들은 영업장 앞에서 25명의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서서 술을 마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은 웨이트리스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카부 바 라운지는 규정을 다수 위반하였으며, 6월 26일 및 30일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트이스트 엘름허스트 아스토리아 블라바드 91-01 91-05의 "라라일 스테이크하우스(Lalile Steakhouse)"

7월 25일 주정부의 다가구 태스크포스 조사관들은 페이스 커버 착용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장 앞에서 밀집한 채로 서서 술을 마시는 고객을 최소 17명 목격했습니다. SLA는 또한 뉴욕시에서 오후 11시 이후 고객 식음료 취식, 밀집, 영업장 입장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 7월 18일이 시행된 후, 영업장 앞에서 많은 고객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뉴욕 경찰(NYPD)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비상 중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디지털 녹화로 진행된 7월 30일 전체 위원회(Full Board)의 특별 회의에서 Bradley 위원장, Lily Fan 커미셔너 및 Greeley Ford 커미셔너가 결정했습니다.

주 조사관이 위반을 관찰한 후, 공식적인 기소가 제기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 약식 중지(Emergency Summary Suspensions)는 주류관리청에서 라이선스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이 공중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부과됩니다. 중지 명령은 즉시 처리되며 무기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라이선스 영구 해지 및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최대 처벌이 부과됩니다. 비상 중지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소유자는 SLA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앞에서 신속 청문회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